

##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이 근 후

= Abstract =

### A Study on the Social Character of Koreans

Kun Hoo Rhee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hw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e the social character of Koreans which w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to compare with the social character presented by the previous researches. The evaluation method was the opened questionnaire which was composed of the content, "Which is the unique and major social character of Koreans?".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500 college students sampled by random sampling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se traits were presented as the major social character of Koreans : first quick-tempered, second emotional and affectionate, third lack of accuracy, fourth sensitive toward other's response, fifth familialistic and collectivistic, sixth show-off, seventh self-centered, eighth resistant to change, ninth introverted, tenth authoritative trait.

2) The nuclear traits among 10 social character of Koreans was the emotional and affectionate, familialistic and collectivistic tendency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3) It was found that compa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the social character of emotionality and affectionateness was continued but the authoritative trait was decreased and the quick-tempereness was intensified.

KEY WORDS : The social character · Koreans.

## 서 론

국민성은 한 나라의 국민이나 한 민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성은 학자에 따라서는 한 국민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Fromm<sup>1)</sup>은 동일한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니는 제각기 다른 개인적 성격과는 대조가 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성격구조의 핵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를 사회적 성격이라고 이름부쳤다.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모든 인류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도 지니지만 역사적, 문화적 흐름속에서 그 나라 국민만이 독특하게 지니게 된 성격적 특성을 형성하고 유지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개인의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성격이 사회적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회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성격이 개개인의 행동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결정해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개인의 행동 및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 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개성에 대한 통찰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자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듯이, 사회적 성격 역시 깨달음을 통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한 개인이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지켜나가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아 인식이 중요하듯이,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문화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에 있어서 정확한 사회적 성격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흐름속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은 앞으로 다가 올 미래 사회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은 Osgood가 강화도의 농촌을 조사하고 아울러 문헌적 연구를 결합하여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저술한 이래<sup>2)</sup>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 현재까지 문헌에 발표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은 대부분이 전통적 한국 사상 또는 문화 관심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고찰이었다<sup>3)</sup>. 그 입장은 철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정신의학, 문학, 법, 정치, 경제, 예술 등 다양하지만 그 접근방식은 종합적 고찰 형식을 띄고 있다<sup>3-9)</sup>. 이러한 연구 방식은 연구자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격, 연구 동기, 그리고 경험의 폭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연구에 대한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고 발전적으로 탐색되고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조사는 한국인 자신이 의식하고 있고 자각하고 있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인의 주요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방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연구자의 주관적 입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를 대학생에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한국인

의 성격을 추적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본 조사연구는 이러한 개방식 질문에 응답된 결과를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제작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본 조사연구의 대상은 3개 대학의 대학생집단 514명이었고 이 가운데 응답에 충분하게 협조하지 않아 응답이 불충분하였던 대상자를 제외한 결과 전체 500명이 최종 응답자로 처리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표집 방법은 무작위 추출하였다. 응답자들의 학년 분포를 보면 1~2학년 284명(56.8%), 3~4학년 216명(43.2%)이었고 성별은 남학생 241명(49.2%), 여학생 259명(51.8%)이었다.

본 조사의 질문지는 개방식 질문지로서 질문 내용은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인의 성격은 어떤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특징적인 성격 5가지를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라고 제시되었다. 조사 시행과정에서 가능하면 협조적이고 성실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사자가 충분한 설명과 동기 유발을 거친 뒤 응답하도록 하였다.

## 결 과

한국인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이라고 응답된 내용을 순서대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주요한 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겠다. 첫째 성격이나 행동이 급하다, 들

Table 1. Social traits of Koreans by questionnaire

| Contents of social traits            | N(%)        |
|--------------------------------------|-------------|
| 1. Quick-tempered                    | 356(20.3)   |
| 2. Emotional and affectionate        | 304(17.5)   |
| 3. Lack of accuracy                  | 230(13.1)   |
| 4. Sensitive toward other's response | 212(12.1)   |
| 5. Familialistic and collectivistic  | 162(9.2)    |
| 6. Show-off trait                    | 142(8.1)    |
| 7. Self-centered                     | 118(6.7)    |
| 8. Resistant to changes              | 98(5.6)     |
| 9. Introverted                       | 68(3.9)     |
| 10. Authoritative                    | 60(3.4)     |
| 11. Others                           | 2(.1)       |
| Total number                         | 1752(100.0) |

째 감정적이고 정이 많다, 세계 정확성이 부족하다, 네째 남의 눈치를 본다, 다섯째 가족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강하다, 여섯째 허세가 심하다, 일곱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여덟번째 변화를 싫어한다, 아홉번째 내성적이다, 열번째 권위주의적이다. 이러한 각 사회적 특성들 가운데 반응 빈도가 높은 급하다, 감정적이고 정이 많다, 정확성이 부족하다, 남의 눈치를 본다는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급하다는 세부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Table 2).

Table 2에서 보면 급하다는 대부분 여유없고 급하게 서두른다는 내용이 88.7%이며, 참을성이 없다도 6.7%로서 한국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세부 내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성급한 특징은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아닌 부정적 특징으로 응답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다음은 감정적이고 정적이라는 특징의 세부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Table 3).

Table 3에서 보면 감정적이다가 40.8%, 정이 많다, 또는 정에 약하다, 정이 깊다가 33.6%, 감정 차이가 심하다가 25.6%였다. 여기에서도 감정적 특성은 인정이 많다는 것과 같이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응답의 약 2/3는 감정적이고 정서 변화가 심하다는 부정적 내용이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은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특성의 세부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Table 4).

Table 4에서 보면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60%, 적당주의로 대충 대충 일한다가 25.3%, 사고력이 부족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14.7%였다. 이 특성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남의 눈치를 본다는 세부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Table 5).

**Table 2.** Sub-contents of quick-tempered trait

| Contents  | N(%)      |
|-----------|-----------|
| Urgent    | 280(78.6) |
| Hurry     | 36(10.1)  |
| Impatient | 24(6.7)   |

**Table 3.** Sub-contents of emotional and affectionate trait

| Contents     | N(%)      |
|--------------|-----------|
| Emotional    | 124(40.8) |
| Affectionate | 102(33.6) |
| Labile mood  | 78(25.6)  |

Table 5에는 남의 눈치 본다는에서 61.8%, 남의 말을 믿어 하고 남에게 비판적이다에서 31.6%, 남 따라 한다, 주관이 부족하다 6.6%였다. 이 내용은 주로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내용으로 드러났고 이 역시 비교적 부정적인 시각으로 응답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외에 다섯번째 집단주의는 집단에 소속되기를 좋아하고 결속력이 강하고 집단에 헌신적이라는 긍정적인 내용과 더불어 집단이기주의, 지나친 연고주의가 함께 지적되었다. 여섯번째 허세를 부린다는 체면을 중시한다, 과시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일곱번째 개인주의적인 특징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잘난체하고 단결이 잘 안되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덟번째 변화를 싫어한다는 보수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개혁보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아홉번째 내성적이라는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소극적이라는 내용이었다. 열번째 권위적이라는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적이고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한다는 내용이었다.

## 고 안

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개방식 질문에서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한국인의 주요 사회적 특징으로는 첫째 급하다, 둘째 감정적이고 정이 많다, 세계 정확성이 부족하다, 네째 남의 눈치를 본다, 다섯째 가족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강하다, 여섯째 허세가 심하다, 일곱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여덟번째 변화를 싫어한다, 아홉번째 내성적이다, 열번째 권위주의적이다였다.

이러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특성을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비교해본다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성격의 변화 추세를 대략적으로 분석해

**Table 4.** Sub-contents of lack of accuracy

| Contents             | N(%)      |
|----------------------|-----------|
| Lack of accuracy     | 138(60.0) |
| Unexquisite          | 58(25.3)  |
| Lack of deliberation | 34(14.7)  |

**Table 5.** Sub-contents of sensitiveness toward other's response

| Contents                   | N(%)      |
|----------------------------|-----------|
| Sensitive toward others    | 131(61.8) |
| Over concern to others     | 67(31.6)  |
| Following other's behavior | 14(6.6)   |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보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 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한국인의 情과 관련된 특성이었다. 젊은 세대들 역시 한국인의 독특한 성격으로 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성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은 선행 연구들이 주로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연구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 경과에 따른 한국인의 변화 추세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닌가 추론된다. 즉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속에서 한국인은 더욱 성급하고 서두르고 여유를 잃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젊은 세대도 역시 성급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의 情, 인정, 정서성을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꼽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여겨진다. 이는 한국인의 내면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사회적 변화와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속성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국인의 가장 주요한 사회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情은 상대를 아껴주는 마음이라고도 정의될 수 있으며 情의 외적 표현인 人情은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처럼 생각하여 그를 도우려는 행동성향이라고 정의된다<sup>101)</sup>. 정은 상대방과의 밀착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정이 있는 관계에서는 개인들은 타인의 곤경을 방관하지 않고 자신의 곤경처럼 시비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정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을 열거해보기로 하자.

첫째, 정은 유교 문화의 산물이다. 유교에서는 가족적 인간관계를 이상적 인간관계의 한 모형으로 보고 가족적 인간관계를 가족 밖의 사회적 인간관계까지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 육친의 정을 통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듯이, 가족밖 우리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정을 느끼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sup>11)</sup>. 둘째, 정은 한국인의 독특한 인간관계에서 발생된다. 한국인의 인간관계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우리라는 공간이 있다. 우리속에서는 너와 내가 분리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이해와 득실을 따지는 이해타산적인 교환관계는 배척된다. 따라서 우리관계속에서 개인들은 타인의 곤경을 보고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않으며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그의 고통에 동참하여 도움을 베푸는 것이다<sup>11)</sup>. 또한 우리관계에서 개인들은 서로가 남남이 아니고 친밀감을 경험하며 비밀이 없고 편안한 마음을 느낀다. 세계 정은

긍정적 결과로서 비인간화 현상을 막아주게 된다<sup>11)</sup>. 정은 우리관계속에 있는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된 우리는 서로 분리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와 이해를 초월한다. 따라서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조건없이 상대를 도와주고 베풀게 된다. 이와같은 정으로 맺어진 우리관계에서 비인간화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네째 정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심의 부족<sup>12)</sup>, 혈연이나 지연에 따른 정실주의<sup>13)</sup>,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sup>14)</sup> 등은 정의 부정적 산물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은 집단간 차별 의식을 낳고 우리끼리의 내집단에 대한 편애와 우리속에 끼어들지 못한 타인들, 즉 외집단에 대한 배척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는 이유는 정을 느끼는 우리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성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sup>15)</sup>. 다시 말하자면 정을 느낄 때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판단, 합리적이고 객관적 판단 보다는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차제호는 정을 강조함으로써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를 몇가지 지적하고 있다<sup>16)</sup>. 첫째, 정의 부정적 산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 강조와 개인의 욕구 소홀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교의 가족주의와 연관하여 가족집단에 충실하는 것이 개인의 욕구충족이나 자아실현보다 중요시됨으로써 개인의 의무만이 강조되고 개인의 욕구 충족은 등한히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던 점이 정의 부정적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육친간에 우러나오는 정의 감정, 즉 가족간에 존재하는 애착관계를 모든 인간관계의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른 관계, 즉 대등하고 형평의 관계와 같은 점은 소홀히 하였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부정함으로써 갈등을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소홀히 다루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다른 정의 부정적 결과로서 공사 미분화가 지적되고 있다<sup>9)</sup>.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우리의 세계속에서 천지, 자연과 인간이 또한 하나인 전체를 항상 강조해 온 동양적 전통에서公私私를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현대 한국인은 아직 모든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원시적 심성에 사로잡혀 있다. 시간과 공

간과 감정과 이성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남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니 하는 주객 미분의 혹은 주객 합일의 전제에서 살며, 이 요소의 분리를 인간성에 대한 모욕처럼 느끼기조차 한다. 개인의 시간, 개인의 공간, 개인의 감정, 개인의 권리는 침해 또는 침투되기 마련이고 나와 너의 경계는 극히 얇고 약하다. 이심전심의 전통적, 비언어적 소통은 때때로 나의 마음의 연장으로서의 또는 병적인 눈치라는 투사적 판단의 그릇된 파악으로 오염된다. 정실은 해방 후 공적 사회의 암적 존재로서 불식되지 못하고 있고, 공적인 신청 서류를 내도 사람이 가서 직접 만나지 않으면 정당하게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현대 한국인은 아직 글보다는 말, 말보다는 얼굴을 더 중히 여긴다. 법은 인간보다 아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도 지키지 않는가 하면 때로는 법이 초합리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법의 준수가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행동에 일정한 규범이 없다. 법은 이성과 현실 감각의 표현인데, 한국인에게는 이 두가지가 다 빈약하다. 그래서 법이 실효성 없는 철학이 되거나 지킬 수 없는 법이 생겨 이것은 의식의 이중성을 조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情緒性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한국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情緒性을 들고 있다. 문화인류학자 Osgood는 강화도 현지 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정서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2)</sup>. 정서적으로 내향성 경향이 강하지만 정서적 불안정도 심한 편으로 감정의 억압과 발산이 교체되어 나타난다. 한국인은 원래 정서성이 강하지만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가족주의, 예교주의를 받아들여 가부장제도, 남존여비, 조상숭배, 그리고 형식주의가 강조되었으나 이들의 한국인의 긴장을 가중시켜서 내적으로 정서성이 강한 한국인은 억압을 유지시키지 못하여 감정을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기술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국인의 정서가 억압과 발산 또는 폭발의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한국인이 정이 많고 인정이 많기 때문에 이성적이라기 보다는 정서적이라는 지적은 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언급할 때는 한국인의 정서가 억압적임을 강조하고 있다<sup>10)</sup>.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은 감정과 의욕을 억제하고 한번 당한 원한을 오래 마음에 간직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은 망아적 걱정에 잘 사로잡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sup>3)</sup>. 지금까지 나온 여러 자료에서는 모두 한국인의 이지적 측면보다는 감정적 측

면이 크게 언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도 이 가정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망아적이란 나를 벗어나서 어떤 커다란 세계에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승과 저승의 분열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을 누르고 그 노출을 멀리하는 이교 문화의 경직된 주지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 이를 지양하는 무의식적 반작용이 강해져서 그와 똑같은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다. 망아상태에 빠진 개인이나 집단은 감정적으로 고양되어 신바람을 일으킬지 모르나, 자아 팽창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할 때 파괴적인 행동도 거침없이 하게 된다. 망아상태에서의 흥분과 열광은 희열의 절정이지만, 그리고 이 힘이 무엇인가 선한 것, 고귀한 것을 행하게 하지만, 바로 그것의 이면을 보지 못하게 되어 선의 그림자인 악의 충동에 사로잡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 신바람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기 쉬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한국인의 정서성은 억압과 폭발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해야 옳을 것 같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서성은 자유로운 정서 표현을 나타낸다고 보다는 판단과정에서의 정서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즉 판단하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보다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남 눈치 본다는 내용이 주요한 한국인의 사회적 특징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타인 의식은 한국인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이에 따른 허세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가족주의 및 집단주의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선행 연구들에서는 한국인의 주요 특징으로 가족주의 및 집단주의를 지적하여 왔다. 최재석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5가지를 지적하였는데<sup>14)</sup>, 이 모든 내용들이 가족주의나 집단주의, 나아가서 권위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첫째로 가족주의적 특징을 보인다. 둘째로 권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로 상하계층별로 행동양식이 뚜렷하게 분화되어 있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행동양식이 잘 발달되어 있다. 넷째 집단에 의존하기 위하여 파벌행동을 당연시한다. 다섯째 공동체로 부터 각 개인이 잘 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집단주의, 파벌성, 가족주의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되어 왔다<sup>17-19)</sup>.

한편 한국인의 가족주의 및 집단주의는 권위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권위

주의의 원형은 가족관계에서 부자관계라고 지적되어 왔다<sup>20)</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한국 가족이 아버지-아들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대가족제도로써 한 아버지 밑에 여러 아들이 동거를 하는 주거형태를 갖게 된다. 이와같이 여러 하위 가족이 대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다 보면 다양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에 의해서 지배되는 가족에서는 최후의 결정은 아버지가 내리게 되어 있고, 그 결정에 모든 가족구성원이 승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당연히 강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 인정과 더불어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효도였다<sup>21)22)</sup>.

권위주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관료의 권위위식과 상하의 엄격한 구별<sup>16)</sup>, 상하관계의 신화적 측면<sup>3)</sup>, 관료의 권위위식과 권력이 동반되는 감투에의 집착, 시민에 대한 멸시 및 통제<sup>14)</sup>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주로 사회적 관계에서 관료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일반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도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한국인의 권위위식은 강한 자에 대한 굴종, 약한 자에 대한 지배와 군림을 초래하여 왔으며 권위관계에서 보여지는 한국인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매우 강한 것이었다. 차재호<sup>10)</sup>는 부정적인 국민성 가운데 권위주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상하의 역할상의 구별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상하의 구별이 무제한한下的의 복종을 의미하게 되면 하위자에 있는 자는 피동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나친 상하의 구별은 두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하위자의 창의성이나 기술을 충분히 집단의 문제 해결에 투입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위자의 참여 의식을 저해하는 것이다.

본 조사연구에서 볼 때 가족주의 및 집단주의는 본 조사에서 한국인의 주요 사회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권위주의는 이와 다르게 열번째로 순위가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부장제의 약화, 사회의 민주화 추세 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가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보다 대학생 집단은 타인 의식을 더욱 두드러진 한국인의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아직 한국인이 집단주의적 성향이 있으며 진정한 타인과의 분리나 개별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시사해준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대학생집단이 한국인의 주요한 사회적 성격요인으로 제시한 10가지 특성은 성급함, 감정성, 가족주의 및 집단주의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아직 한국인의 정서성과 가족주의가 매우 주요한 사회적 성격요인으로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급함은 과거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지 않았던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요인으로서 현재는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꼽히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특성요인은 긍정적 측면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정적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성급함, 감정성, 집단주의가 그러하다. 그리고 대학생집단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가운데 권위주의 경향이 약화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 요 약

본 조사연구는 대학생이 자각하고 있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대상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대학생집단 500명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개방식 질문장식에 의해 응답자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 첫째 성격이나 행동이 급하다, 둘째 감정적이고 정이 많다, 셋째 정확성이 부족하다, 넷째 남의 눈치를 본다, 다섯째 가족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강하다, 여섯째 허세가 심하다, 일곱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여덟번째 변화를 싫어한다, 아홉번째 내성적이다, 열번째 권위주의가 지적되었다.

2)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가운데 가장 주요한 특징은 감정적이고, 정적이고, 가족주의적이고 집단주의가 강하다였다.

3) 본 조사에서 추출된 한국인의 주요 사회적 성격은 과거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정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일치되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이라는 그 강도가 약화되고 있고, 성급하다는 특징은 강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References

- 1) Fromm E : *The sane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Inc. 1963 : 67
- 2) Osgood C : *The Koreans and their culture*. New

York, Ronald Press 1951 : 326-330

- 3) 이부영 : 한국인의 성격 : 한국인 성격의 심리학적 고찰.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5
- 4) 김두현 : 우리 국민성의 고찰. 국민윤리연구 1979 : 8 : 9-20
- 5) 임동권 : 민속학의 측면에서 본 국민성. 국민윤리연구 1979 : 8 : 33-34
- 6) 김대환 : 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국민성. 국민윤리연구 1979 : 8 : 45-55
- 7) 이훈중 : 문학적 측면에서 본 국민성. 국민윤리연구 1979 : 8 : 57-68
- 8) 윤태림 : 한국인. 서울, 현암사, 1970
- 9) 이규태 : 우리 말의 구조와 사고구조 : 한국인의 사상 구조. 서울, 크리스찬 아카데미, 1972 : 297-307
- 10) 최상진 :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1993 : 5-21
- 11) 이수원 · 이현남 :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1993 : 61-80
- 12) 이규태 :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 문화사, 1983 : 5-6
- 13) 김경동 :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1992 : 31-40
- 14) 최재석 :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양문사, 1980 : 15-80
- 15) 김기석 : *Some Key Concepts for Understanding People in Korea*.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 연구 1979 : 4 : 81-83
- 16) 차재호 : 한국인의 성격 : 국민성의 활성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고려원 1984 : 112-144
- 17) 정대위 : 한국인상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1984 : 29 : 106-107
- 18) 김재은 :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 문헌 및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 43-70
- 19) 김성태 :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인문논집 1987 : 32 : 119-134
- 20) 한성열 :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1993 : 47-60
- 21) 이근후 : 한국의 전통적 인간관계와 현대적 인간관계. 최신의학 1980 : 23 : 3 : 16-22
- 22) 김광일 : *The Oedipus complex in our changing society :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신경정신의학 1978 : 16 : 58-59